

금년도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3월17일 전국 항만에서 시행

해양수산부는 3월17일 0시부터 올해 항만하역 요금을 4.5% 인상하여 전국 항만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전년도 물가상승률(소비자 3.6%, 생산자 2.2%)과 임금상승률(전산업평균 9.4%) 등을 고려하여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6.1%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4.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항만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 인상된 바 있다.

최근 대내외 정국 및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금년도 항만하역요금이 조기에 인가되어 항만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관련단체 임직원 14명 등 20명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은 3월9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지난 한해동안 해양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한 업·단체 임직원 14명과 관계공무원 6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표창대상자 중 현대상선(주) 석한징(石翰澄) 차장은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선박맞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의 국내수용을 위한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여 선박보안평가서 및 선박보안계획서표준모델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

을 받았다.

또 통영해양경찰서의 김종욱(金鍾旭) 경감은 관내 여객선 및 유·도선 400여척과 선착장 157개소에 대한 계절별, 시기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점검 길잡이를 작성하여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체계화한 공로가 인정되어 받게됐다.

이밖에 ▲업·단체에서 한국선급의 김규환, 김상범, 오내열, 산업잠수기술협회 차주홍, 부관웨이(주) 김호영, 선박검사기술협회 최병춘, 수협중앙회 박영태, 해양오염방제조합 이기준, 해사위험물검사소 우종식, 한국해운조합 김한주, (주)포스 문재현, 해양수산연수원 한시빈씨 등이 ▲관련공무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종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박성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권순태, 완도해양경찰서 이몽룡 경장, 해양경찰청 주영덕 경장이 받았으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우수기관표창을 받았다.

해양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해양안전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해양사고 발생현황은 2000년 634건, 2001년 610건, 2002년 557건, 2003년 53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건교부·해양부, 물류개선 공동추진

총괄반, 인프라구축반 등 3개반 구성

항만배후연계 수송망 구축 등 매뉴얼 작성

국가물류정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18일 양부처 교류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물류체계 협력단(물류체계 개선 T/F)」1차 모임을 갖고, 이슈가 되는 주요한 물류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열린 협력단 회의에서 양부처는 관련 과장급을 반장으로, 담당 사무관과 관련 전문가 등을 반원으로 해 총괄반, 인프라구축반, 위기대응반의 3개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기·비정기 모임을 통해 지난 3월2일 확정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재경부)'의 후속조치 추진, 물류산업 육성, 물류종합전시회 개최, 항만 배후연계 수송망 구축, 해외 물류기업 투자유치, 수송위기 발생시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단 구성은 지난 1월 실시된 양부처 교류국장(건교부 정상호 국장→해양부 해운물류국장, 해양부 이인수 국장→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간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 오던 건교부의 육상·항공물류와 해양부의 해운물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국가차원의 일관수송체계 확립과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물류중심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부처는 지난 3월5일 이미 관련 국·과장 상견례를 가진 바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성

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IMO, 선박 상설접근설비 기준 완화

조선업계, 10만톤 선박 100만불 비용절감

지난 2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47차 선박설계및설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의 화물창(倉) 등 각종 탱크의 정밀검사를 위한 상설접근설비(Permanent Means of Access, PMA)와 관련된 규정이 우리 해운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10만톤급 기준으로 약 100만불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PMA 관련규정은 지난 2002년 12월 IMO 제76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그리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정안이 이번 회의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금년 5월 제78차 해사안전위원회의 추진 절차를 거쳐 내년 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PMA의 주요 개정내용은 ▲모든 갑판트랜스버스에 횡방향의 상설접근수단을 설치토록 했던 것을 모두 제외하였으며 ▲wing 발라스탱크의 접근용 수직사다리를 양단 및 중앙 등 3개소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양단 2개소에 설치토록 하는 등 상당부분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효되는 PMA 규정이 당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선박의 건조비용 상승(180만불~230만불/10만톤급)과 유지보수와 관련한 해운업계의 우려를 해소함은 물론 추가 건조비용의 50~6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해 말에 해운, 조선업계 및 선박검사기관과 2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갖고 IMO 선박설계 및 설비전문위원회

에 아국(我國)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였으며, 동 회의에 13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분야별로 각국 대표단을 설득하는 등 이번 PMA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재구성키로

부산지방청 거시적 항만운영계획 수립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에서는 금년 1월 부산항만공사 출범과 부산신항 개발 등 부산항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회의 위원구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 기관 3명과 부산청장이 위촉하는 항만운영과 관련된 연구교육기관 3명,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정책 및 운영 전문가 6명과 부산시의회의 의원 1명 등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하였다.

『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에서는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국 등 주변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항 개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각 분야의 항만전문가로 구성될 이번 심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보다 거시적이고, 항만여건에 부합하는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

해양환경 보전운동 참여의식 확산위해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대국민 해양환경보

전운동 참여의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민간의 해양오염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해양오염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민간시민단체(NGO), 사회지도급인사, 환경전문가, 학계, 자원봉사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모집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전국 해양경찰서별로 총 625명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2,0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으로써 바다를 더 깨끗이 가꾸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촉요건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있고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제도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하며 ▲지역내 해양수산관련 공무원, 단·업체 임직원 및 어촌계장 ▲임해시설 근로자 및 해양오염감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기타 명예해양감시원으로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해운·항공 등 원화강세 수혜주 분석

외화부채·원자재 수입 많은 기업 주목

원화강세(환율하락)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특히 해운 항공 철강 음식료 등 외화부채와 원자재 수입이 많은 일부 업종의 경우 오히려 주가 상승의 호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증권은 최근 '주요 기업의 환율 민감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화강세는 환차익을 기대하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고, 원화강세가 달러약세 기초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율이 1170원을 밑돌기 시작한 2월 17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외국인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1조5300여억원을 순매수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원화 강세시 가장 수혜를 입을 종목은 대한항공으로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1100원으로 50원 절상될 때 순이익이 5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한진해운, 동국제강, IN스틸, CJ 등이 원화강세시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 한-칠레 FTA 차질없이 시행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규정마련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4월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FTA체제에 맞는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을 마련, 4월1일부터 차질 없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한·칠레 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교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칠레 FTA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세관별로 FTA 전담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수출물품 원산지 자문제도와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3월30일 칠레에서 개최된 한·칠레 관세청장 회의를 통하여 무역업계의 통관애로사항 해소 채널을 구축하는 등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한·칠레 FTA 시행에 따른 농민 등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회수입 우려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칠레측 수출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칠레 세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칠레 FTA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작년 말 FTA 전담부서인 공정무역과를 신설하고, 지난 3월19일 서울·경인지역 무역업계를 상대로 FTA 설명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등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순회설명회 FTA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O, KR-CON 격찬

소프트웨어기술과 IMO 국제협약 완벽하게 접목

복잡하고 난해한 국제해사협약(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 SOLAS,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 MARPOL 등)을 전산화하여 보다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선급(會長 李甲淑)의 국제협약전산화 프로그램, 일명 KR-CON(국제협약전산화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결작으로 호평을 받았다.

3월 중순에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산하의 기국준수전문위원회(FSD) 제12차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로부터 KR-CON이 현대 소프트웨어 기술과 IMO 국제협약의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접목한 결작으로 평가받았다.

통상 Presentation에는 약 40-50여명 정도의 각국 대표들만이 참석하는 것이 상례이나 이번 KR-CON Presentation에는 약 10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Databased IMO Convention인 KR-CON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특히, KR-CON만의 자랑거리인 많은 협약의 개정 내용 중 해당 선박에만 적용되는 기능인 My Ship SOLAS 및 My Ship MARPOL 기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Presentation이 끝난 후 미국의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USCG(United States Coast Guard), 스웨덴의 WMU(World Maritime University), 그리스 선주 대표들로부터 세미나 개최요청이 쇄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Presentation을 진행한 한국선급의 남동 책임검사원(정부대행검사부 근무 /KR-CON특별작업반장/☎042-869-9354)은 6월초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Posidonia 2004에서 KR-CON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 MSC)는 선박의 설계, 건조, 의장품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여객, 화물 및 선박 자체의 안전확보를 도모하고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취급을 위한 각종 기준을 제정하며 선박의 안전향해에 관한 문제로서 선원에 대한 훈련 및 자격기준과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는 일을 한다. 하부에 9개의 전문위원회(기국준수 : FSI, 산적액체 및 가스 : BLG,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 : COMSAR,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 DSC, 방화 : FP, 선박설계, 설비 : DE, 복원성, 만재흡수선 및 어선안전 : SLF, 항해안전 : NAV, 선원훈련, 당직 기준 : STW)를 두고 보다 상세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기국준수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Flag State Implementation : FSI)는 1993

년 신설된 위원회로 각 해사 주관청을 위한 지침의 개발, 결함보고 및 해난통계조사, PSC 관련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해상운송물코드 관련교육 실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4월7-9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서는 2004년 4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본사 교육장에서 해상으로 수출입 되는 위험물(화공품 등) 제조, 취급, 운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교육을 실시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04년 1월1일부터 SOLAS chater VII의 개정으로 해상으로 운송되는 포장화물에 적용되는 IMDG Code(31차)가 강제화되어 국제법으로 발효됨에 따라 수입국가에서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규정준수 및 통제가 점차 강화하고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는 국제해상운송 위험물 검사업무를 정부대행하는 국내 유일한 단체로서 15년간 이에 대한 검사실무, 기준/제도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많은 전문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험물수출입 업체, 외항선사, 포워딩업체 및 기타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2 응진빌딩 별관 402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교육장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IMO관련협약 및 법규(SOLAS, MARPOL, 개항질서법 등), 위험물 기초화학, Class별 분류 및 특성, 위험물 표시표찰/포장용기 및 운송서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제5회 전국 “바다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진해운 지원으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한진해운의 지원으로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범국민 해양사상고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바다에 대한 도전정신과 정서를 함양하게 하며, 바다사랑 글짓기를 통한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제5회 전국바다사랑글짓기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한진해운 창립 2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제5회 전국바다사랑글짓기 공모대회 응모기간은 3월20일부터 4월말까지이며, 5월14일에 시상식을 갖는다.

응모자격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응모부문은 시(동요, 동시)와 산문이며, 특히 산문 참가 부문별 분량은 △초등부(초등학생) 200자 원고지 7-9매 이내(A4용지 1매) △중등부(중학생) 200자 원고지 10-12매 이내(A4용지 1-2매) △고등부(고등학생) 200자 원고지 13-15매 이내(A4용지 2매) 등이다.

또한, 주제는 바다사랑(제목은 자유)으로 4월 30일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7-22, 전화 886-8525, FAX. 886-8521)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 발표는 5월10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홈페이지(<http://www.sekh.or.kr>)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5월14일 서울 소재 한진해운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제출 작품 앞면에 이름, 학교(학년, 반), 전화번호, 주소(학교주소, 집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작품은 필히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추후 입상작이 표절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장학금 등은 환수 조치된다.

해양부 3월29일 국장급 등 인사이동

공보관에 조학행 전총무과장 발령

해양수산부는 3월29일자로 공보관에 조학행 전총무과장 발령내는 등 국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국장급) △공보관 조석행(총무과장) △감사관 신평식(공보관) △안전관리관 김덕일(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수산정책국장 김영규(어업자원국장) △어업자원국장 최장현(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장 서상범(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조종환(항만국 항만개발과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오공균(안전관리관) △총무과장 김석구

(과장급) △총무과장 김석구(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변진식(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박용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국 항만건설과장 최명용(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 △항만국 개발과장 박승기(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 정태욱(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윤정현(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김규진(항만국 항만개발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홍근(항만국 항만건설과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봉섭(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정진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